제5회 대학주보 詩문예 현상공모

당선

감 자 꽃

—재연에게

유 성 호(불문·3)

흰 종이 위에 꼼꼼히 적어내려간
너의 편지를 받던 날
갈대처럼 맑은 너의 가난과 눈물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나는 오래 침묵해야 했다
허울좋게도 문학지망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짓 시를 써온 지 몇 해
마산이나 창원 아니 그 보다 더 먼
홍제동 골목길 서성이는 별빛의 소인이 찍힌
너의 편지에는
감자꽃 꽃대궁이의 불빛으로 글썽이는 대관령 기슭
너를 기다리는 네 어머니의 노동이
뜨겁게 박혀 있었다
주위들은 문학이론을 들먹이며 내가
무슨 화해니 구원이니 시의 시대니 떠들고 있을 때
몸부림치는 강물 줄기를 따라
숨가쁘게 피었다 진 네 고향 밭둔덕의 감자꽃들이
네 아버지의 저문 쟁기질로 나를 후려친다
아무 가책도 없이 순결도 없이

이웃들을 팔아 먹어온 나의 이 뻔뻔한 혓바닥은
백 토막 아니 천 토막을 낸다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너는 알고 있을까, 불어오는 황사 바람속에 서서
남대천 변 잠꽃들을 향하여 바람결에 쓸려가는
네 길고 긴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토막난 내 혓바닥은
미쳐 흐르지 못한 강물이 되어
헐벗은 땅 네 가슴의 시 한 구절로 피어나는데
허기진 앓은뱅이 풀 몇송이의 뜨거움으로
너는 그렇게 손 내미는가
또 어떤 거짓말의 시를 써야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며
한끼 밥도 되지 못하는 너의 시가 가슴치는 날
나는 네 고향의 감자꽃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싶었다
너로 하여 꽃이 되게 하는 식구들의 희망속
시내버스 차창 밖으로 빛나는 네 고향의 분빛들을 위하여
허름한 별이 되고 싶었다
뜨거운 노래가 되고 싶었다.

당선

"생활 속의 눈물이 창작의 원천입니다" 동아리 방에 걸린 짧은 글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철없던 사춘기 시절, 詩를 쓰겠다고 고독이니 존재니 절망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함부로 써먹던 그때가 맑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스물 몇 해를 살아노는 동안 참으로 힘들게 걸어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눈 뜨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지랄탄 연기 속에서 눈물 흘리던 참혹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모범을 남겨야 하는 선배가 되어 후배들의 맑은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 떨구어 주어야 합니다.

벌써 50년 내년엔 반드시 조국의 통일을 어루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한 동지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은 밤입니다.

참사랑과 참 문학에 눈 떠가는 1학년 후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삶의 글, 청춘의 문학을 열어가는 외대문학패 '사랑들'의 모습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애국의 길로 나가게 해준 인봉형, 준정이, 경주, 민주, 희주, 성규, 진환이, 영인이, 승국이, 미진이, 상미 함께 술마시며 고민 들어준 재민이와 상원형, 고등학교적 詩에 눈뜨게 해주신 전교조 강원도지부장 이연빈 선생님, 우리과 학생장 제준이, 문학의 향길은 걸어가는 척맥과 햇살의 여러 식구들께 이 글을 빌어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식민지 조국의 아픔을 노래하고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문예전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변치도 못한 저의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대학주보사 여러분 그리고 이글을 인쇄해 주실 인쇄노동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의 눈물은 창작의 원천 아픔을 노래하고 뛰어 넘고파

유 성 호 (불문·3)

가작

雨 水

배 호 남(국문·3)

가지마다 새순 돋은 자리 끊어가며 견딘 산책길 끝. 묘지송 없는 애기무덤에 열두병풍 둘러서 가지를 심었다. 꽃 피우고 싶던 가버린 꿈들 무디어진 삶의 발치를 간지럽혔다. 잊혀진 동요를 불렀지만 내 노래는 언제나 구름자리 도돌이표에 걸려 첫소절로 되돌아오곤 했다.

옛 염전 자리였던 뻘밭 끝자락. 동요 한 소절 한 소절만한 물꼬리를 터 가는 아이가 있다. 손에는 꽃피는 가지를 들고서

눈이 비 되어 내리는 날, 넓은 이파리들이 깊어올리는 胎兒를 보았다. 속죄처럼

四月 戀歌

벚꽃 떨궈내는 나무 밑 벤취, 뭐 떠오를 법한
추억이 없는가. 까치 날아와 나무에 걸리고
까치는 아무리 봐도 귀한 새는 아니지만
옛 사람들은 추억할 법한
귀인이 무척은 많았던 것일까
(기억의 강물을 채 쳐보면 찬란한
사금 몇 알갱이 길어올릴 것도 같은데)
벚꽃들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약조한 듯
진다. 죽음까지 열파석을 마련해 둔 사랑
(추억 속엔 그리움의 닥한 황사바람만 불고)
까치야. 빈 울음이라도 날 위해 울어주렴

가작

신도림 전철역에서

김 종 필(경제·4)

애인은 낯선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인파에 떠밀려 들어갔다
압축된 참치캔처럼 밀폐된
죽음 속으로

아가리를 꽉 다물고 콰르릉
콰르릉거리며 떠나가는 수원행 전철
무명한 내장 속엔 일그러진 살덩이들

아 안돼!
화다닥 따라붙는 내 마음
마음보다 더 빨리 달아나는 열차

키가 작은 그녀는 전신을 모욕당하며
간신히 눈과 귀만 열어둔 채
발가락조차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배가 고프다고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그녀의 허기진 눈동자
를 떠올리며 내 마음은 미친듯이 수원까지 달려가고

휘청거리는 350원짜리 내 몸 위로 쏟아지는
구둣발
구둣발
구둣발…

가작

김 종 필 (경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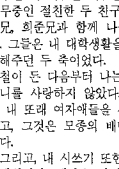
기쁘다기보다 놀라웠다. 아니 그러한 것도 아니다. 그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어느날 나는 검고 앙상하게 마른 겨울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본 적이 있다. 난 그 나무들이 죽은 줄 알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들은 죽은 나무였다. 배를 갈라서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 죽은 나무들 속에서 어느날 연초록 새끼 이파리들이 오돌오돌 기어나왔고 내 짐작은 잘못임이 판명되었다. 다시 그런 엉터리 짐작은 하지 않겠다.

4년동안 정이 들어버린 친구 친수가 할 수 없이 좋아해 준 것이다.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은 다 연옥이에게 떠넘겼다. 그래도 끝끝내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는 나보다 강하다. 그녀는 프로다. 모두가 나의 스승인 '문맥'회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턱없이 모자란 작품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어둠은 빛의 어머니란 자각

가작



배 호 남 (국문·3)

기쁘다. 아니, 기쁘지 않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아니다. 이런 부담을 안겨주신 것이 원망스럽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 호연장담을 하기에는 내 재주와 배짱이 턱없이 모자람을 나는 잘 안다.

우선 이 기쁨을 지금은 군복무중인 절친한 두 친구, 진영모, 최준모와 함께 나누겠다. 그들은 내 대학생활을 지탱해주던 두 축이었다.

철이 든 다음부터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내 또래 여자애들을 사랑했고, 그것은 모종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내 시쓰기 또한 배반행위이다. 세상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하중에 짤려 압사할 지경이다. 세상의 사랑에 보답하는 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는 배반을 꿈꾸었고, 詩를 쓴다.

오랫동안 나를 짝사랑해오셨던 어머니께 부족한 詩를 바친다.

세상에의 배반을 꿈꾸던 詩

공모후기

주제의식·시적완성도 중시

시가 시다울 수 있는 부분적 요소와 전체적 상관관계 질서있게 연결돼야

대학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시문예 현상공모가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시문예에서는 유성호(불문·3)군이 '감자꽃'으로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한 문인의 산실로 알려진 국문과가 대학주보 시문예에서도 매년 강세를 보여 왔는데 비해 이번 불문과 유성호군의 당선은 국문과가 아닌 타과 학생으로서 당선한 이래적 사건이라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가작으로는 김종필(경제·4)군의 '신도림 전철역에서'와 배호남(국문·3)군의 '우수(雨水)'와 '4월 연가'가 나란히 올랐다는 점도 어색적이다.

입선작은 오정석(국문·3)군의 '새의 무게'와 현광석(국문·3)군의 '출항전(出港前)' 그리고 수상자 중 최연소이며 홍일점인 이새아(중문·1)양의 '겨울, 바다 그리고 나'이다.

심사는 나호열 시인이 예심을 맡아 17편을 본심작으로 꼽았고 박이도(문리대 국문과·시인)교수, 김종회(교양학부·문학평론가)교수, 신경림시인, 신광호(동문)시인이 본심을 맡았으며 본사 주간 이석우(문리대·사학)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예심을 맡아 263편의 시를 모두 본 나호열시인은 "기교적인 표현력보다 발상이나 실험성이 뛰어난 시를 추렸으며 이념성이 소재가 될 지라도 그 속의 미적 형상화·완성도를 주의 깊게 보았다"며 평가 기준을 밝혔다.

올해의 시문예는 모두 52인이 263편(서울 41명, 209편/수원 11명, 54편)을 응모하였다. 5월 2일부터 9일까지의 짧은 응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못지 않은 수의 작품이 들어왔으며 이러한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주보)는 대학문예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독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비판을 바라 마지 않는다. 〈문화부〉

심사평

(유성호)은 겉보기로서의 삶과 그 속에 잠긴 내면적 진실의 두 항목을 날카롭게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짧지 않은 시의 문면을 처음에서 끝까지 관류하는 힘있는 언어들로 채우고 있었다. 이 패기찬 시어들의 밀어내리는 힘이야말로 이 시를 당선작으로 만든 가장 유력한 조건이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는 시인의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인간애가 배어있어서, 그동안 많은 습작의 단계를 거쳐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두편의 가작 가운데 '우수'(배호남)는 당선작과 끝까지 경합을 벌였으나 아깝게 한자리 밀린 작품인데, 기실 시적 수준에 있어서는 이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아가자기하게 배설되고 탄력성있게 걸어올려지는 시의 맛이나 분위기는 오히려 정제적인 형상에 이르는 박진감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다. 이들 두 예비시인은 지금 몰아에 내보낸다 해도 충분히 제사리를 지키면서 제목소리를 내 낼 수 있으리라고 심사위원들은 기꺼운 뜻을 모았다.

또 한편의 가작 '신도림 전철역에서'(김종필)는 전철 차표를 화자로 한 독특한 시각을 설정하고, 평범한 전철역의 풍경 속에서 평범하지 아니한 관찰력을 작동시키는 시적 재능을 보였다. 열심히 정진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미더움을 남겨 주었다.

한편 입선작으로 결정된 세편의 작품 '새의 무게'(오정석), '출항전(현광석)', '겨울바다 그리고 나'(이새아) 등은 '모두들 그 나름대로 시를 어떻게 써야하며 언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축약과 암시와 비유와 상징의 기능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두는 시의 전체적 형상에 대한 상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했으면 좋았으리라는 후감이 있었다.

올해로서 5회를 맞는 대학주보의 시문예 현상공모에 이처럼 수준있는 작품들이 응모되고 또 좋은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심사위원들만의 기쁨일 수 있으며 반세기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경희창작문화의 밝은 내일을 점치게하는 청신호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부문에만 그치지 말고 소설부문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두 창작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 : 본심—이석우 교수·박이도교수·김종희 교수(글)·신경림시인·신광호시인, 예심—나호열시인